

현대중공업(주)

“아무도 장애인으로 보지 않아요!”

現代重工業(대표: 崔吉善)에 두 농아(聾啞) 직원이 한 사무실에 근무해 작은 화제가 되고 있다.

설계운영부 복사실에 근무하는 이 두 주인공은 지난 3월 영천장사씨름대회를 끝으로 17년 간의 ‘모래판 생활’을 접은 前 현대코끼리씨름단 尹석찬 선수(32세)와 울산 농아인 축구 대표팀 코치 겸 감독인 裴경삼씨(35세).

‘농아 선수’로 프로 씨름판에서는 익히 알려진 尹석찬씨는 ‘97년부터 현대코끼리씨름단의 백두급 선수로 활약했으며, 은퇴하자마자 現代重工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다.

윤씨가 복사실에서 수행할 업무는 現代重工業 조선사업부 설계 사무실과 현장 70여곳에 배포할 대형 설계도면을 부서코드에 따라 분류하고 전송하는 일이다.

‘자칫 실수라도 하면 현장의 공정에 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고 말하는 그는 모래판 시합에 임하는 진지한 모습으로 새로운 업무를 배우기에 여념이 없다.

최성구 차장(팀장)을 비롯한 20여명의 동료들은 신장 188센티미터, 몸무게 115킬로그램인 거구에다 농아(聾啞)인 신입사원을 맞아 긴장될 법도 한데, 대부분 인사를 비롯한 간단한

수화를 할 수 있어 업무상 의사소통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복사실에서 11년째 근무해온 농아 선배 裴경삼씨가 있어 윤씨를 가까이에서 지도해 줄 계획이다.

지난 ‘97년부터 알고 지내온 이 두 사람은 ‘98년 창단된 現代重工業사내 수화동호회인 ‘손사랑회’ 회원으로 함께 활동해왔다.

윤씨와 배씨는 바쁜 훈련과 업무 틈틈이 수화동호회의 수화교실 지도교사로 회원들에게 수화를 가르쳐 왔으며, 농아가정 방문 봉사활동, 수화 거리 홍보, 청각장애인 돕기 일일호프 등 손사랑회의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 참여해 왔다.

체격은 눈에 띄 정도로 정반대지만, 스포츠를 향한 열정만큼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이 두 사람은 운동을 즐긴다.

키가 170센티미터가 채 안되는 배씨는 축구를 비롯해 족구, 탁구 등 못하는 운동이 없는 만능 스포츠맨이며, 사내 축구대회가 열리면 언제나 주전선수로 맹활약할 정도로 소문난 축구광이다.

울산광역시 승격 이전 전국 농아인 축구대회에서 경남 대표로 출전, 경남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는가 하면, 수차례 MVP에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는 울산농아인 축구 감독 겸 코치를 맡고 있으며, 5월 말 울산시 동구 서부동 서부구장에서 열리는 「전국

농아인 축구대회」를 준비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씨름선수 시절 동안 운동이 몸에 배인 윤씨는 은퇴 후에도 헬스장에서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으며, 2003년 5월 천안에서 열리는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는 유도선수로 출전할 계획이라고 한다.

「축구를 해보고 싶은 욕심도 있어요. 필드를 뛰려면 살부터 빼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선수시절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간단한 식단과 운동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윤씨는 살이 빠지면 배씨가 활동하고 있는 조기축구회에도 가입, 축구를 해볼 생각이다.

말동무가 생겨 그렇게 신날 수가 없다는 복사실 단짝 배씨와 윤씨의 ‘특별한 우정’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미소를 짓게 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필리핀 파나이섬에 화력발전소 건설 MOU 체결

말라야화력, 일리한화력에 이어 3번째 발전소 건설

韓國電力(사장 姜東錫) 필리핀 現地法人(KEPHILCO)은 지난 4월 1일 필리핀 Panay 섬 현지에서 10만kW급(5만kW×2기)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Panay 섬 Antique 주정부 Salvacion Z. Perez 주지사와 한전 현지법인 이길구(李吉久) 사장 간에 사업협력에 대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라 한전은 지난 4월 중순에 건설대상부지 선정을 위한 사전 기초조사 착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갈 예정이다. 총투자비 약 1억불을 들여 BOO(Build, Own & Operate)방식으로 향후 25년간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며, 투자지분에 대한 예상수익률은 15%로 고수익이 전망된다.

또한 Panay 섬 정부에서는 건설부지를 장기 임대방식으로 제공하고, 각종 인허가 취득 등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하여 한전은 필리핀 내에서 기름 연소 발전소인 말라야화력과 가스연소 발전소인 일리한복합에 이어 석탄을 연료로 하는 유동층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추진이 가시화 되어 한전의 발전분야에 대한 총체적이고 명실상부한 기술능력을 인정받고 과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동층발전 방식이란 국내 동해화력에서 운용중인데 질이 낮은 무연탄을 보일러 안에서 탈황시켜 발전하는 환경친화적 발전소로서 필리핀정부의 환경기준에 적합한 유동층발전소 건

설을 통해 Panay섬의 전력부족 문제 해결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Panay 섬을 순시 중인 필리핀 아로요 대통령은 필리핀 정부 각료와 인근지역 상하원의원 및 Panay지역 주요인사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전의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관련 MOU 내용을 발표하여 많은 환영과 함께 사업 참여에 대한 입지를 더욱 굳히게 되었다.

아파트형 공장 전기사용 절차 대폭 간소화

전국 1만 5000명 중소기업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

최 근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주로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전기사용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지난 4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금까지 아파트형 공장 내에 입주한 업체의 경우 요금이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장 사무실 사이의 벽을 허물고 전기계기도 한곳에 모아서 설치해야 하는 등 적지 않은 비용과 복잡한 구비서류 등으로 인해 사실상 전기요금이 비싼 일반용 전력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선된 제도에 따르면 공장, 사무실이 고정된 벽으로 구분

될 경우에도 별도의 전기사용 계약단위로 인정하고, 공장과 인접한 사무실은 부대설비로 간주하여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전기계기는 층별 단위 또는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구분된 장소에 별도 부설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7층에 이르는 구비서류는 안전관리담당자 선임증, 계기부설 인입선 설계서 및 약식 수전(受電)도면 등을 생략하여 법인 인감증명서는 입주자 대표 인감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고, 건축물 관리대장과 변압기설비 공동이용 약정서 등 3종만으로 산업용 전력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 구로공단의 디지털단지 등 전국 50여개 아파트형 공장의 1만 5000여 입주업체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아파트형 공장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자동화기기(CD/ATM)로 전기요금 납부하세요”

은행시간과 관계 없이 납부, 맞벌이 부부 등 편리

고 객들이 전기요금을 보다 편리하고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은행이나 공공장소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전기요금 납부제도를 지난 4월 21일부터 시행했다.

고객은 은행이나 공공장소에 설치

된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전기요금 청구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로 요금내역을 조회하고 그 자리에서 현금(직불)카드로 바로 납부함으로써 맞벌이부부 등 낮에 여유시간이 없는 고객들이 굳이 은행을 찾아가는 불편이 없어지게 된다.

또한 밤 늦게까지 이용할 수 있는 CD/ATM기기로 인해 은행창구 영업시간에 관계 없이 휴일이나 야간은 물론 청구서를 분실하였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도 전기요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어 납기일 경과에 따른 연체료 부담이 줄어들게 되며, 납부내역은 실시간(Real-time)으로 한전에 통보되어 서비스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5월부터는 은행이나 자동화기기에 가지 않고도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인터넷뱅킹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인터넷 전자결제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보다 편리하게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남동발전(주)

윤리경영실천 다짐대회 개최

한국남동발전(주)(사장 尹幸淳)은 지난 4월 16일 본사 별관에 윤리경영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하였다.

직원 대표가 낭독한 결의문에서 남

동발전은 지난 2001년 4월 회사 설립 이후 지속적인 경영혁신으로 경영효율 향상과 서비스 수준의 개선을 통하여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일부 관행적인 부조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스스로 반성하고, 국민에게 믿음과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바로서기 위해서 모든 업무를 투명, 정확, 신속하게 처리할 것과 협력회사와 평등한 동반자관계를 형성하며 일체의 금품수수나 향응을 배격할 것, 그리고 청렴하고 분수에 맞는 생활습관을 해 나갈 것 등을 천명하였다.

이어서 윤행순 사장은 훈시를 통해 참된 인재가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제시하면서 도덕성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기업들도 21세기에 들어서서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요구받고 있어 기업이 사회와 함께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윤리경영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하고 향후 인사평가에서 도덕성과 정직성을 중시할 것과 전사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인 윤리경영 체제를 갖추어갈 뜻을 밝혔다.

한편 남동발전은 지난 2001년 직원 윤리헌장과 행동준칙을 제정, 선포하였으며 청렴계약제, 품질벌점제, 건설실명제 등 분야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제도를 개발하여 시대적인 윤리경영 요구에 부응하여 오고 있다.

두산중공업(주)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 추진팀 가동

미국 기업과의 공동 참여방안 등 수주 전략 모색

두산중공업(대표: 金大中)은 이라크 전쟁이 종료됨에 따라 전후 복구사업 참여를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지난 4월 12일 조직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이 미국 업체의 주도하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오덕수(吳德洙) 미주지역장(전무)이 팀장을 맡은 이 테스크포스팀은 발전, 담수 등 관련사업 BG(Business Group)장, 5개 해외지점, 실무영업부서장 등이 참여하며 신규발전사업반, 발전서비스사업반, 담수사업반, 건설사업반으로 구성됐다.

테스크포스팀은 이라크 전후 재건사업과 관련한 기초 정보 수집과 사업별 영업환경 조사, 사업별 진출 전략 및 대응 시나리오 수립, 마케팅 인프라 구축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두산중공업은 이번 전쟁으로 이라크 내의 발전소 등 사회간접시설이 많이 파괴된 점과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가 과거 10년 동안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제2의 중동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이라크 내의 발전소 전력생산능력은 전쟁 전에도 4,400MW로 전력수요

6,200MW에 훨씬 못 미치고 있어 수도권 바그다드조차 여름과 겨울에 하루 4시간씩 단전되어 왔다.

특히 두산중공업은 발전소를 설계에서부터 기자재 제작·시공까지 일괄 수행이 가능한 점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이 지역 발전소 건설 및 복구공사 참여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

또한 이라크 외에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 에미리트 등 다른 중동 지역에서도 그 동안 전쟁 리스크로 인해 유보되어 왔던 발전, 담수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산자부와 한국플랜트산업협회가 계획하고 있는 중동지역 플랜트 수주단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이 회사 김태화(金泰和) 전무(담수 BG장)는 “이라크의 전후복구 사업은 미국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국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마케팅 인프라를 마련하는 등 미국 내 대기업들과 공동 참여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두산중공업은 이와는 별도로 각 BG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활동 등을 전사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영업지원 T/F팀도 구성했다.

영업지원 T/F팀은 플랜트 수주상단에 필요한 계약서 법률 검토, 세금, 보험, 관세, 운송, 파이낸싱, 외환 관리 등의 업무를 전문가들로 구성해 원스톱 서비스하며,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영업지원을 위해 국내외 유명 법무

법인, 회계법인, 보험사와 연계한 글로벌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했다.

(주)효성
중국사업 확대

효성(회장 : 조석래)이 중국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그룹 사상 처음으로 지난 4월 18일 중국 저장(浙江)성 자싱(加興)시에서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는 조석래 회장을 비롯해 이상운 총괄사장 겸 전략본부장 외에 주요 사장단(PG장)이 대거 참석해 중국 프로젝트를 현장에서 점검했다. 사장단이 해외에서 함께 회의를 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효성의 조 회장은 최근 임원회의에서 “중국은 인건비가 낮아 진출하는 곳이 아니라 이미 첨단분야의 제조기술을 협력해도 좋을 만큼 기술 진보 속도가 빠르다”며 “중국의 주요 지역에 효성의 생산 거점을 확보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룹은 중단기 중국 진출 전략안을 최근 마련했다.

효성의 중국 진출 전략은 섬유분야의 생산거점 건설공사를 연내에 마무리 짓고 중국전력 인프라사업과 금융전산화 시장에 참여하는 한편 앞으로 첨단기술 분야에도 중국기업과 협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특히 조희장 일행은 이번 방중기간 동안 중국 정부와 당의 주요 인사들과 만나 효성의 향후 중국사업과 관련한 계획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효성은 중국 저장성 자싱시에 중설 중인 스판텍스 공장을 비롯해 신축 중인 ▶타이어 코드 ▶폴리에스테르 산업자재용 공장 건설을 2003년 8월까지 마무리 해 자싱시를 효성의 중국 내 섬유 거점단지로 만들 계획이다.

또 중국 난징(南京)에 있는 중국 중전기업체 두 곳과 합작해 중국 전력인프라 사업에도 진출해 국내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변압기와 차단기 등을 현지에서 생산할 계획이다.

효성은 중국 정부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추진중인 대규모 전력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그 동안 중국 중전기 업체는 물론 중국 정부와도 중전기 사업 합작을 타진해왔고 중국의 전력기기 시장은 2조원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효성은 또 계열사인 노틸러스 효성을 통해 중국의 금융전산화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노틸러스 효성은 주력 제품인 ▶현금자동지급기(CD) ▶현금 입출금기(ATM) ▶금융창구 단말기 등을 중국 농업은행 등 주요 은행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올 하반기부터 제품 공급을 위해 베이징에 판매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